



## 새로운 만남

12월의 말레이시아.

박은유  
신인하  
조수영  
윤하림  
김현진

우리 말레이시아 팀만의 장점이자 단점일까. 우리는 “아 이제 할만하다.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할 때쯤이면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 한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설레는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헤어짐은 아쉽다. 우리는 이렇게 아쉬움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안고 지난 2 달간의 베다니 흙의 생활을 정리하고 KL로 도착하였다.

## 👉 PATHWAYS ACADEMY



KL로 도착한 우리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B.B에서 인연을 맺게 된 Aaron Tan 이였다. Tan은 B.B에서 우리와의 만남 이후, 자신이 가르치는 ACADEMY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들이었기에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13세에서 16세의 중학생들. 이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놀라웠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은 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와 손으로 그린 태극기. 틀린 문장을 고쳐주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간의 만남은 약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먼저 수영이의 한국의 지형과 우리 5명의 고향에 대해 짚막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명절인 Chinese New Year 에 맞춰 한국의 설날 문화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혀 한국의 절 문화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사실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지켜워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은 기우였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한국의 대해 이야기를 했고, 수영이는 거기에 답해 주느라 진땀을 뺐다. 역시 아이들의 관심사는 한국의 아이돌문화와 드라마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되려 물어보는 일이 많았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왔던 한국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곰세마리" 동요를 가르쳐 달라고도 하였다. 드라마 풀 하우스에서 송혜교가 곰세마리를 불렀던 장면이 여기서도 이슈였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문화 (주로 드라마와 아이돌에 관한 부분이 많았지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2시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 한국의 팬인 아이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 그리운 사람들과의 만남.



KL에서 약 일주일을 보낸 우리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엄마 아이린과 함께 페낭YMCA로 이동했다. 페낭에서의 시작은 반가운 재회로 시작 했다. 오매불망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아나 간사님과, 송실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중간보고를 위해 우리가 머물고 있는 페낭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동안의 일정을 짚막하게나마 이야기 드리고, 페낭의 이곳 저곳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될 곳도 둘러봤다. 우리가 1월에 활동하게 될 곳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근로 터인 ACS이다. 이곳 ACS는 베다니 홈의 라이트 하우스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베다니 홈의 라이트 하우스는 직업훈련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강하고, 선생님의 지도 아래에 위치하지만 이곳은 교육이 아닌 철저히 직업을 위해 만든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인지 나중에 ACS에서의 일은 그저 우리가 이 분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나 간사님도 우리가 이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 후 우리는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돌아다녔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 페낭으로 이동 한 줄 알았으나, 간간히 흔적만 보일 뿐 거의 대부분이 복구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페낭의 이곳 저곳을 둘러본 후 총장님이 오신 덕분인지 며칠 동안 진수성찬을 맛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팀원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지난 3개월에 대해 아나 간사님과 1:1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 이었다. 비

록 나(현진)는 잠에 빠져버린 관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간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짝막하게 해야만 했지만 팀원들은 밤새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니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게 짧았던 2일간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였다.

## ☞ 무서운 친구들. YOUTH CLUB



사실 이 모임은 우리 라온아띠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교류를 위해 3기 때부터 결성이 된 모임이다. 우리의 코디네이터 위니를 비롯하여 열명 남짓의 또래 친구들.

같은 20대이기 때문일까.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와 관점을 가지고 쉽게 친해 질 수 있었다. 친목을 위해 만든 클럽이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하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문화교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도 나누었지만 그것은 1월말 하게 될 food exchange 행사뿐. 그 외에는 일정이 끝난 시간과 주말, 우리가 쉬는 시간에는 그저 이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이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고 신나게 노는 만큼 자금난에 빠지기도 했으며, 가끔 우리가 놀러 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과하게 놀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제쳐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12월 한 달을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지나치리 싶을 만큼 우리에게 친절했고,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자청했다. 그만큼 유쾌한 친구들이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이외에 무언가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친목도모를 넘어서 의미를 찾고 그것에 대해 같이

논하는 그러한 활동 말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활동이 없었지만 우리가 ACS의 활동을 끝내고 YMCA로 돌아가게 되면 남은 기간에는 우리가 주도하여 활동을 같이 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 ☞ 페낭 YMCA, 그리고 PMY



우리는 8일부터 17일까지 약 2 주 동안 페낭 PMY에서 deaf 아이들과 방학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KL에서도 6 명의 deaf 아이들과 같이 활동했던 경험이 있던 바, 우리 모두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다. 또한 페낭 PMY에는 중학생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deaf 친구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특히 수영이는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만난다는 소리에 KL의 어린이와 또 다르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좋아했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짜여준 계획표에는 수영이와 내가 한 조로 초등학교 deaf 어린이 세 명과 프로그램을 맡고, 하림, 인하, 온유는 중학생 deaf 여자 아이들 4명과 한 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림. 인하. 온유는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하여 이것저것 물품을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준비하였고, 수영이와 나는 프로그램들이 미리 짜여 있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달랑 공예를 위한 준비물과 만드는 방법만을 남겨주고 가버려 적잖이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프로그램은 두 서너 가지 이었고 또한 금방 끝나는 것들 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종이 접기를 어떻게 더 이어 나갈 것인가를 찾아야 했으며, 나뭇잎을 붙이는 미술 활동을 변형시켜 커다란 정글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구상하여만 하였다. 그래도 KL PMY와 베다니 홈에서의 활동들로 그런 일에 익숙해 진 터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사실 그 보다 더 큰 난관은 수영이가 맡은 '넬슨'이라는 남학생이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은 끝까지 하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후에 중학생 deaf 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파티를 같이 준비하는 데에도 있어서도 몇 가지 일에 부딪혀야 했다. 선생님 께서는 수영이와 내가 맡고 있는 초등학생 deaf 어린이 두 명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우리의 한복을 입혀 꼭두각시 공연을 진행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수영이의 학생, 넬슨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다음날 중학생 여자 아이로 교체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16일에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였다. 수영이와 인하, 온유는 같은 여자애들이라서 그런지 중학생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사실 상 나는 초등학생 애들을 맡았고, 하림이는 이것저것 만드느라 그 애들과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보다는 여자애들을 잘 따르는 느낌도 들었다.

물론 이건 나만의 생각이다. 중학생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비롯하여 한국의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온유와 아이들은 틈만 나면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다. 또 아이들이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재능이 있어 인하와도 잘 맞는 거 같았다. 수영이와 나는 중학생 여자아이 한 명과 초등학생 여자아이 한 명에게 꼭두각시 춤을 가르쳤다. 베다니 홈에서 아이들에게 댄스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서 생각보다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무척 힘이 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deaf인 아이들에게 과연 박자를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점 이었다.

우리 조차도 노래를 듣고 춤을 추어도 박자를 맞추기가 힘들어 중간중간에 놓쳤는데, 우리의 동작에만 의존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자꾸 동작을 틀리니 어떻게 하냐는 제스처를 보일 때는 정말 창피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 👁️ Christmas Party

파티 날, 아이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파티 물품들을 홀에 데코레이션을 하고, 파티 준비를 하였다. 처음 KL의 international deaf party 를 경험했던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바랬지만 그 보다 규모도 훨씬 작았고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마이크 음향이 너무 크게 잡히거나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돌발사항도 있었다.



물론 사회부터 게임진행, 공연과 경품추천까지 PMY의 아이들이 주가 돼서 만든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만 더 예행연습을 하고 사전에 테스트를 충분히 하였음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파티는 저녁식사와 함께 시작하였는데, 첫 공연은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 아이들의 꼭두각시 춤으로 시작하였다. 바로 전날까지 박자를 못 맞춘 우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구석에 숨어 춤을 추었고, 애들은 그러한 내 동작을 보고 무리 없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사실 아이들이 박자를 못 맞췄다기 보다는 음악에 의존해서 가르치려 한 우리가 더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우리의 한복을 입고 춤을 춘 두 소녀는 참 귀여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는 괜히 우리가 뿌듯해 지는 순간 이었다.



우리 라온아띠 팀도 공연을 두 가지 준비하였는데, deaf 파티인 점을 감안하여 김수원 선생님에게 배웠던 "거위의 꿈"을 수화로 공연하였다. 우리가 국내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연습했고, 많은 교육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 동안 한번도 하질 않아 걱정도 됐으나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직접 안무를 짰 부채춤이었다. 물론 우리가 짜낸 안무라 진짜 부채춤 만큼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주었다.



그러나 공연 말고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 하였다.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다. 급한 마음에 PMY의 아이 두 명을 데리고 부랴부랴 올라갔다.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고 올라 갔으나 그 후에 나는 울며 겨자먹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게임은 바로 와사비를 바른 식빵을 팀원들과 얼마나 많이 먹나 하는 게임이었다. 차마 억지로 끌고 나간 아이들에게 빵을 먹으라 하지 못하고 나 혼자 먹으라 했으나,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씩 먹어줘 아이들에게 상품을 줄 수 있었다. 그 후 게임에도 참여자가 저조해 우리는 YOUTH CLUB의 리더인 Jason 에게 억지로 나가라고 떠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리 저리 아쉬움이 많았던 파티였지만, 아이들과 같이 준비 했다는 게 우리에게서 가장 의미가 컸다.

한가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것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미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이 아이들은 각각 우리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준비했던 것 이었다. 우리 5명의 캐릭터를 각각 그려 책갈피를 만들어줬으며, 열쇠고리, 아기자기한 병과 노트 등, 하나 하나 세심하게 포장한 것을 보고 아이들의 세심한 마음에 고마웠으며, 또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였기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 👁 리더십 캠프



우리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의 리더십 캠프를 다녀왔다. 이 리더십 캠프는 3명의 스텝과 7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라온아띠 5명과 코디네이터 위니가 가디언이라는 명칭 하에 동참하였다. 캠프를 하기 위해 우리는 페낭YMCA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캠프 장소로 이동 하였다. 캠프의 시작은 아이들의 통성명으로 시작 되었다. 14명의 아이들을 A와 B,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우리 가디언 6명(위니를 포함하여)은 세 명씩 한 그룹을 맞게 되었다. 하림이와 인하, 수영이는 B그룹을, 온유와 나, 그리고 위니는 A의 그룹을 맡았다. 우리는 가디언 일뿐, 그룹의 리더는 각 그룹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15살 아이 두 명이 맡아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처음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룹 별로 종이를 나눠준 후, 아이들의 이름과 학교, 취미생활 등을 적어 외워 나중엔 한 명씩 나와 랜덤으로 뽑혀진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게임 이었다. 솔직히 나는 가디언이라는 이름 하에 애들만 살펴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참여를 안하고 있다 내 차례가 오니 당황하여 더듬더듬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몇 가지의 간단한 게임과 더불어 (주로 협동심을 요구하는 게임이 많았다. 하지만 그 게임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단출한 것들이었다.) 서로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갔다. 우리 라온아띠는 각각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였다. 베다니 홈의 캠프를 생각 한 나는 애들을 하나 하나 챙겨주려 하였으나, 그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나는 우리 그룹의 리더와 13살, 10살 아이와 함께 방을 썼었는데 그 아이들은 캠프를 5,6년째 참가하는 베테랑들 이었다. 그 아이들은 오히려 나를 챙겨주기에 바빴다.



우리 라온아띠에게는 이틀 동안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첫날, 우리는 베다니 홈과 KL PMY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한지로 부채 꾸미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번에는 특별히 직접 풀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모양을 꾸미기 까지 진행 하였다.

그러나 2시간으로 잡혀진 시간에서 우리는 한 시간 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한 시간은 내일 있을 그룹 상황극을 만들고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각 팀 별로 자유형식으로 갖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극을 짜는 시간이었다.

정말 무수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있었다. 스태프가 각각의 역할을 주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손자의 친구까지 9명이 다양한 역할이 주어졌다.) 나는 가족을 방문한 친구 역할, 온유는 할머니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상황극을 짜는데 있어 나는 당황함을 금치 못하였다. 처음의 역할은 9살 여자아이의 친구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나와 친구라는 설정을 싫어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 역할을 바꾸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뀐 내 역할은 신약실험의 부작용으로 등장하자마자 죽는 역할 이였다....

온유는 그런 날 위해 Chinese New Year에 죽는 역할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애들을 설득시켜 부작용이 생겼지만 살아 있는 역할로 바꿔주었다. 수영, 하림, 인하의 팀은 수업시간에 아이들끼리 싸우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한 아이의 싸우는 모션이 너무 실감나 우리 모두 한참동안 웃는 일도 있었다. 갖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며 캠프의 하룻밤이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우리는 간단한 산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다. 이 날은 그룹 팀 미션과 Low Element Ground 두 가지의 일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룹 팀 미션은 우리 가디언 5명과 (이날 위니는 YMCA에서의 일이 있어 돌아가고 우리 5명이 낮 일정을 같이 하게 되었다.) 스태프 3명이 각각의 미션을 가지고 있고, 각 그룹 두 팀이 서로 협동하여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주변의 자연물을 모아 하나의 모습을 만들고, 각 팀끼리 다리를 묶고 이동하고, 모두가 몸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등, 여러 미션이 주어지고 각 미션마다 점수를 주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점수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들은 모두 10점씩을 쥐 서로가 즐거운 미션이었다. 한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팀 별로 미션을 하기 위해 가디언들을 찾는 것 이었는데, 인하가 숨은 곳은 도저히 찾

지 못해 우리 모두가 인하를 찾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그룹 미션을 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 Low Element Ground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베다니 홈에서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외줄 타기, 나무 올라가기, 줄 잡고 타이어 건너기 등 약 5가지의 장애물 코스가 있었으나, 이 아이들은 순식간에 해 버려 몇 가지 코스를 급조해서 만들었다. 서로 다리를 묶고 한 걸음씩 이동하는 코스에서는 우리 5명도 같이 참가를 하였다. 순식간에 해내려는 아이들은 서로 호흡을 맞추지 못하여 느리게 움직일 수 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우리를 끌고 순식간에 가 버려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다. 코스의 마지막은 물 풍선을 서로 던지고 받는 코스였는데, 역시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제일 재미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물 풍선을 던져가며 흠뻑 적셨다. 그렇게 흘린 땀을 식히며 오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저녁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에는 마지막 저녁을 기념하며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노트, 연필 등

갖가지 물품을 걸고 윷놀이를 하였다. 처음에는 룰을 잘 몰라 진담 흘리며 설명하고, 한번 하고 나니 아이들은 금세 윷놀이에 흠뻑 빠졌다. 아이들의 열의는 굉장했다. 나누어서 각 팀에 속한 우리도 승부욕에 불타 올랐고,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다. 아이들은 어느 말을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 서로 싸워가며 참가를 하였고, 윷이 연달아 4번 나오고 두 번, 세 번 엮은 말들이 연속적으로 잡힘으로써 게임은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흥미진진 하였다. (나도 윷놀이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러한 연출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윷놀이를 하고 우리는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며 (사실 아이들 연령대가 제각각 이라 선물을 줄 때에도 고민을 하였지만 아이들은 고맙게도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좋아하며 받았다.) 캠프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사실 캠프의 마지막 밤은 그룹 별로 만든 상황극을 하면 끝내야 하는데, 상황극의 일정이 취소되고 스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행하라 하여 우리는 윷놀이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캠프의 셋째 날, 우리는 산책 대신에 자연 그리기를 통해 아침을 맞이하였다. 자연 그리기란 아이들이 갖가지 나뭇잎, 돌 조각 등을 모아 그림을 만드는 것이었다. 약 15분 정도 자연 그리기가 끝난 후 우리는 Kek Lok Si 관광을 하였다. Kek Lok Si는 불교 템플로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었다. 약 두 시간 정도 아이들과 케이블카도 타고, 여러 동상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관광을 보낸 후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잡으며 YMCA로 도착하였다. YMCA에 도착한 우리는 우리가 활동한 사진을 엮어 만든 동영상을 보며 작별을 고했다.



사실 나는 이번 캠프를 다녀온 후 실망을 좀 했었다. 이러한 감정은 나만이 아닌 우리 팀원들도 조금씩 느꼈다. YMCA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하는 캠프였고 또한 매년 오랫동안 하였던 캠프라 하여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렇지만 캠프를 가기 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캠프 공지는 12월 초부터 하였지만 아이들의 참여가 저조 하여 우리는 가기 이틀 전, 확정 된 일정을 받을 수 있었다.

베다니 홈을 마무리 하기 전에도 2박 3일의 캠프를 다녀 왔던 나에게서는 큰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그 만큼 실망도 컸었다. 전문기관에서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캠프라는 거에 비하면 프로그램들이 조금 허술한 면이 있는 거 같았다. 짜인 프로그램들은 리더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였다. 또한 스텝 세 명 중 한 명은 그저 스텝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온 15살의 여자아이 이었고, 사실상 캠프의 진행은 두 명의 스텝이 알아서 하는 것이었다. 우리 라온아띠 5명이 참가 해 스텝이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적은 스텝으로 진행 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일정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말고는 스텝이 짜 놓은 프로그램과 일정에 그저 참가하는 정도 이었다.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일정은 시간에 맞춰서 지켜지지 않았다. 스텝 두 분은 아이들과 같은 숙소가 아닌 다른 숙소를 썼고, 우리는 기상시간에 맞춰서 모두 준비하고 있었으나 스텝 두 분이 내려오질 않아 아침일정이 축소 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생겨 버렸던 것이다.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나는 스텝들이 그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같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캠프를 진행한 곳은 사실상 산 하나라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Low Element Ground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스텝 두 분이 참가하지 않고 그저 그 곳을 관리하는 분에게 맡겨 놓아 아이들은 협동심을 요구하는 게임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그냥 통과해 버리거나, 아이들 몇몇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림이는 왜 참가가 저조한지 알 거 같다고 하였다. 사실상 참가비에 비하면은 프로그램은 너무나 단순하였고, 아이들의 식사도 매 끼니가 전부 도시락으로 제공이 되어 아이들이 불평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방의 13살 아이는 이틀 동안 단 세끼만 먹었을 뿐이다. 도시락이 너무 맛이 없다고 하였던가?)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실망을 좀 한 적이 있었다. 협동심 게임을 하는데 서로 잘못 했다고 욕을 해 나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팀 별로 하는 게임이라 모든 아이들이 완성을 해야 끝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은 순식간에 자기 것을 해 놓고는 다음 코스로 가 버린다. 남아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챙겨주고 먼저 가 버린 아이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산만하고 말을 안 들을까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만약 베다니 홈의 캠프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 베다니 홈의 아이들은 하나 하나 일일이 챙겨줘야 했으며 모든 아이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우리는 그래서인지 챙겨주는 것과 기다림에 익숙해졌다.

어쩌면 그 나이 때의 아이들에게는 그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보다 통제를 하지 않는 스텝 두 분이 더 야속하게 느껴 졌을 지도 모른다. 리더십 캠프라는 이름이지만, 아이들은 그냥 방학을 즐기기 위한 캠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 👁 12월의 말레이시아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우리는 12월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활동을 하기 위해 ACS로 이동 한다. 또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러.....

12월의 우리는 반성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한다. 일정이 없었다고, 자주 바뀌었다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나태해 졌다는 생각이 드는 건 부정 할 수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은 서서히 벌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만 그냥 저냥 끝내려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 한달,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이 팍 차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